아트앤스터디 <오페라에 중독되다>

② 18세기 오페라: 과장과 자연미

1. 바로크 후기와 고전주의

1) 시대 개요: 1700년에서 1750년경에 이르는 바로크 시대 후기는 오페라 세리아에서 기교적인 양식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이며 오페라 부파의 탄생기이다. 초기 오페라는 주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계나 영웅전설에서 소재를 얻어왔는데, 이런 오페라를 '오페라 세리아(진지한 오페라)'라고 불렀다. 이런 작품들은 무대의 볼거리나 음악은 화려했지만 내용이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멀어, 소박한 부르주아(평민) 계급이 즐기기에는 지루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처음에는 오페라가 궁정이나 귀족 개인의 의뢰로 만들어지고 그들을 관객으로 삼았기 때문에 소재를 귀족들의 취향에 맞춰야 했지만, 일반 시민들이 주관객이 되면서 오페라도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선은 평범한 시민계급의 일상을 소재로 한 '인테르메초(Intermezzo)'라는 막간극을 만들어 본극 중간에 관객에게 보여 주었는데, 희극적인 상황을 담은 이 막간극은 원래의 오페라보다 더 인기를 끌어 나중에는 '오페라 부파(opera buffa. 희극 오페라)'라는 장르로 독립하게 되었다.
18세기는 흔히 '이성의 시대'로 불린다. 그때까지 당연시된 신앙과 권위에 대해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런 비판정신이 오페라 부파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 오페라 부파는 권위에 대한 비웃음을 용납하지 않았던 중세와 바로크 전기를 뛰어넘은 '웃음의 승리'를 보여준다.

2) 오페라 부파의 성공적 효시: 1733년에 초연된 페르골레시(Giovanni Battista Pergolesi, 1710-1736)의 오페라 <마님이 된 하녀La serva pardona>는 막간극으로 만들어졌다가 큰 인기를 얻은 대표적인 희극 오페라로, 계급의 질서가 무너지는 새로운 시대를 오페라라는 예술 장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담아냈는가를 보여 주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구두쇠 노총각 우베르토가 자신을 쥐고 흔드는 하녀 세르피나를 쫓아내고 결혼하려 하자 주인을 짝사랑해온 세르피나가 꾀를 내어 결국 주인과 결혼하는 데 성공한다는 줄거리. 이에 앞서 1725년에 함부르크 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된 <핌피오네>도 비슷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3) 바로크의 기교주의 극복한 글룩의 개혁 오페라: 악보가 현존하는 최초의 오페라인 페리의 <에우리디체>(1600), 오페라의 신기원을 연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1607), 글룩의 '개혁'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1762), 하이든의 <애지자(愛智者)의 영혼 혹은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1791) 등 오르페우스 이야기는 여러 시대 작곡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이 가운데 대본과 음악이 가장 생동감 있고 감동적인 작품은 역시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룩(Christoph Willibald Gluck, 1714-1787)의 <오르페오와 에우리

디체Orfeo ed Euridice>다. 페리의 작품에서는 음악이 가사를 따르고 뒷받침하는 종속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몬테베르디는 음악이 '문학의 시녀' 역할을 하는 이런 상태를 과감히 벗어나 음악의 아름다움과 독립성을 살리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17세기 초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이처럼 음악의 독립성을 추구하며 현란한 성악 기교 위주로 발전해간 바로크 오페라는 기교와 과장이 지나쳐 차츰 '음악을 괴물로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보헤미아 태생으로 프라하-밀라노-런던을 거쳐 이 무렵 빈에 정착한 글룩은 1750년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의 궁정악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기교가 지나쳐 생명력을 잃은 당대 오페라를 개혁해야겠다는 의지를 품고 대표작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를 작곡했다. 1762년 빈(Wien) 부르크테아터에서 초연된 이 오페라의 장르 명칭은 '아치오네 테아트랄레azione teatrale'로, '신화적 소재를 취해 합창과 무용을 가미한 공연예술'을 뜻한다.

'음악은 오페라 스토리가 요구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글룩은 극과 음악 전체에서 '기품 있는 소박함noble simplicity'을 추구했다. 그러려면 우선 줄거리와 구성이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워야 했고, 음악 역시 지나친 꾸밈이나 장식으로 극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했다. 글룩은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처럼 합창단이 극중 사건에 직접 관여하게 했고 합창의 비중을 독창만큼 높였으며, 바로크 오페라에서 주로 사용된 레치타티보 세코(recitativo secco: 주로 첼발로가 간소하게 반주하는 레치타티보) 대신 레치타티보 아콤파냐토(recitativo accompagnato: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가 함께 반주하는 레치타티보)를 사용해 음악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주인공들의 유려한 아리아와 중창뿐만 아니라 교회음악적 장중함에 인간적인 격정을 조화시킨 합창, 그리고 우아하고 화려한 춤곡들이 황홀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글룩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는 이후 독일 오페라에 큰 영향을 끼쳤다.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베토벤의 <피델리오>,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는 모두 오르페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자신을 억제하며 감정을 숨겨야 하는 주인공들을 내세웠다.

빈 초연은 이탈리아어로 이루어졌고, 이때 글룩은 알토 카스트라토 가수에게 오르페오 역을 맡겼다. 그러나 12년 뒤인 1774년 파리 초연이 이루어졌을 때 글룩은 테너가 오르페오 역을 부르도록 편곡작업을 했다. 프랑스에는 카스트라토의 전통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프랑스 테너는 고음에서 팔세토(가성)를 썼으므로 고음역이 더 확장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테너가 파리 판본으로 오르페오 역을 부르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적인 테너보다 더 고음을 낼 수 있는 테너만이 부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파리 판본의 경우 요즘은 대부분 메조소프라노나 알토 또는 카운터테너 가수가 오르페오 역을 맡는다.

2. 모차르트 희극오페라의 발전

1) 시대 개요 : 음악에서는 바로크에서 고전주의 시대로 넘어오는 길목에 로코코의 '스틸 갈랑(style galant)'이 있다. 궁중생활의 우아함과 세련된 모습을 그려낸 양식인 로코코는

프랑스어로 조가비를 뜻하는 '로카유(rocaille)'에서 왔는데, 이 조가비는 프랑스 건축가들이 후기 바로크의 지나친 웅장함을 약화시키기 위해 도입한 장식이었다. 로코코의 특징은 우아함, 경박함, 감각적 즐거움이었고, 오토보이렌 수도원 성당 등으로 대표되는 건축면에서도 이 시대는 쾌락주의와 자유방임의 성격을 보여준다. 음악에서도 바로크 시대를 지배하던 복잡한 원칙과 구조 대신 가벼운 멜로디가 자유롭게 흐르는 양식이 유행했다.
지배자들이 자신들만의 문화가 만들어낸 쾌락에 빠져 평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을 때 계몽주의자들은 이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1750년경부터 183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이어지는 예술의 고전주의 시대에 바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정치적 사건인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났다. 사회의 격동은 예술에도 큰 영향을 미쳐, 오페라의 고전주의 시대는 예술이 신화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내려와 삶의 온갖 희로애락과 사회비판을 담아내게 되었다.
'고전주의'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은 양식으로, 고대 예술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단순, 명료, 균형, 절제 등의 특징을 지닌 예술 사조다. 음악적으로는 바로크의 복잡한 폴리포니(다성악)보다 장식이 적은 멜로디와 화성으로 옮겨감을 뜻한다. 낭만주의 예술가는 감성적으로 작품을 창조하지만 고전주의 예술가는 좀더 객관적, 이성적으로 창조한다. 그러므로 열정적이면서도 고도로 절제된 음악을 창조했던 모차르트는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라고 할 수 있다. 모차르트와 동시대 작곡가들인 치마로사나 살리에리는 음악형식에 있어 모차르트와 대단히 유사한 오페라들을 작곡했으나, 모차르트는 그들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파격으로 다음 세기의 오페라에 길을 열어주었다.

2)오페라 부파(opera buffa) : 페르골레시의 <마님이 된 하녀>를 최초의 성공작으로 하여, 모차르트 후기 오페라들과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Il barbiere di Siviglia> 등 수많은 희극 오페라들이 이에 속한다.
희극의 본질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놓는'시정correction'에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비극과는 달리 희극은 인간의 이성(理性)에 호소한다. 답답한 세리아 형식에서 오페라를 해방시키면서 소재와 형식의 대변환을 가져온 것이 부파이며, 오페라가 귀족의 궁정예술로 머무르지 않고 극장을 통해 상업화하게 된 계기 역시 부파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부파는 페르골레시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했지만,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는 18세기 초에 그의 오페라 10편에서 이미 60개가 넘는 부파 장면들을 만들어냈다.

a. 오페라 부파의 예 :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Le nozze di Figaro>

작곡 :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대본 : 로렌초 다 폰테
원작 : 피에르 오귀스트 카롱 드 보마르셰의 희곡 <피가로의 결혼>(1780년)

초연 : 1786년 5월 1일 빈, 12월 프라하
배경 : 18세기 스페인

감상곡 :
1) 피가로의 아리아 'Non piu andrai'(나비는 이제 날지 못하리)
2) 백작부인과 수잔나의 이중창 'Sull'aria'(산들바람에)

* 음악의 혁신성 : 솔로 아리아가 단연 강세를 보였던 이전의 모차르트 오페라와는 달리, 솔로 아리아와 중창의 비중을 비슷하게 배정하고 아리아와 레치타티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b. 드라마 조코소(dramma giocoso)의 예 : <돈 조반니Don Giovanni>

작곡 :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대본 : 로렌초 다 폰테(Lorenzo da Ponte)
원작 : 티르소 데 몰리나의 <세비야의 바람둥이와 석상손님>(1620년경)
초연 : 1787년 10월 29일, 체코 프라하 에스타테스 극장
배경 : 중세 스페인

감상곡 :
3) 하인 레포렐로의 아리아 'Madamina'(카탈로그의 노래)
4) 돈 조반니의 아리아 'Fin chan dal vino'(포도주를 마시고)

* 대본의 내용보다 음악이 더욱 미묘하고 복잡하게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묘사하는 작품
3)징슈필(Singspiel) : 18세기에 독일에서 발전한 형식으로 독일적인 정서와 소재가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 프랑스의 오페라 코미크처럼 중간에 음악이 없이 대사가 등장한다. 모차르트의 <후궁탈출Die Entfuehrung aus dem Serail>, <마술피리Die Zauberfloete>는 징슈필이라는 장르를 이탈리아 오페라 수준으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작품이다.

징슈필의 예 : <마술피리Die Zauberfloete>

작곡 :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대본 : 에마누엘 쉬카네너(Emmanuel Schikaneder)
원작 : 핀란드 동화집
초연 : 1791년 9월 30일, 빈(Wien) 교외 '프라이하우스테아터'
배경 : 고대 이집트